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4-2】

2014. 3. 3.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

목 차

I. 이란 핵개발 동결 협상 타결	1
II. 협상 타결의 배경	2
III. 협상 타결 후의 주요 상황 전개	3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6

국별조사실

작성: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5720)
oki1122@koreaexim.go.kr

확인: 실 장 김주영 (3779-5702)
jykim@koreaexim.go.kr



■ 이란과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2013년 11월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후속조치 이행 관련 협상이 진행 중임. 이하에서는 핵협상 타결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예측코자 함.

I. 이란 핵개발 동결 협상 타결 (2013년 11월)

□ 이란이 우라늄 농축비율 제한과 핵사찰 허용 등의 이행에 합의

-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 간의 이란 핵개발 동결을 위한 협상이 2013년 11월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되었음.

핵개발 동결 협상의 주요 합의사항

- 1)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하며, 핵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20%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전면 중단**함.
- 2)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의 1/2를 5% 이하로 희석**시키고 나머지 **1/2를 우라늄 산화물로 전환**하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 (단,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시설은 유지 가능)
- 3) 이란은 2014년 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던 **Arak 중수로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함.
 - 동 발전소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서방 국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동 중수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음.
- 4) 이란은 **IAEA에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및 우라늄 광산에 대한 사찰을 허용**함.



- 동 협상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기존 원심분리기의 해체, 핵무기 제조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Parchin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 등 궁극적 수준의 합의안 도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
- 미국과 EU는 이란측의 합의 이행의 대가로 향후 6개월간 국외에서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중 일부인 42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8차례에 걸쳐 해제하고, 석유화학제품·귀금속·자동차·항공부품 등 무역거래와 외국 거주 이란 유학생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며,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적보험 제공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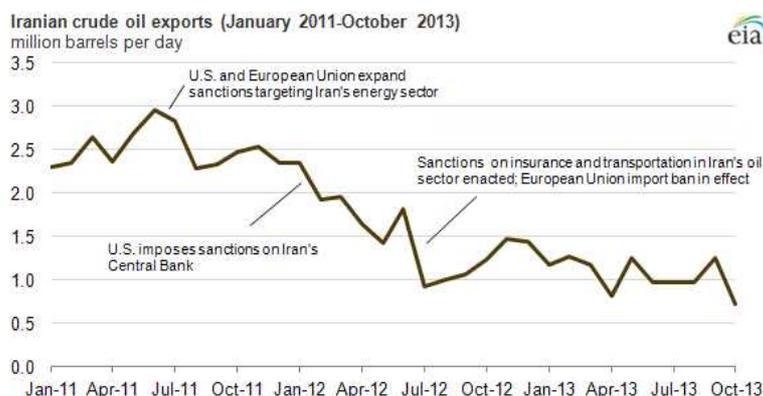
II. 협상 타결의 배경

□ UN과 서방 국가들의 재제 지속으로 이란의 경제난 가중

- 2006년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으로 핵무기 개발의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의 주도하에 UN과 EU 등이 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이란은 무역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경제난이 가중되어 국내적으로 서방 국가들과의 타협 요구가 제기되었음.
- UN은 2006년 12월 안보리 결의안 1737호를 통해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를 개시한 이후 2012년 6월까지 총 7개의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 이란에 대하여 해외자산 동결, 금융제재, 각종 금수조치 등을 취해 왔음.
- 특히 2012년 7월 EU가 이란산 원유 수출을 겨냥하여 이란의 수출 관련 보험 및 운송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효시키면서 이란의 수출이 원유를 중심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음.
- 2012년 7월부터 EU는 역내 모든 보험회사의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 제공을 금지하였음. 이란의 원유 수출은 유조선에 의하며,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이 가능함. 유럽의 선주상호보험(P&I) 클럽은 전 세계 유조선 운송보험의 95%를 제공하고 있어, EU의 운송보험 제공 금지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거의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이란 경제는 2012년 5.6%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음. 2013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원유의 생산량 및 수출량이 감소하여, 이란 경제는 2013년에도 3.0%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이란의 원유 수출규모 변동 추이 (2001.1월 ~ 2013.10월)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온건파 Rouhani 대통령의 당선으로 서방과의 협상 가속화

- 2013년 8월 온건파로 알려진 Hassan Rouhani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대결구도가 완화됨에 따라,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교착상태를 지속했던 서방 국가들과의 핵개발 관련 협상이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 Ahmadinejad 前대통령은 2009년 6월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국 혼란이 야기되었음. 또한 대외적으로 강경 노선을 견지한 결과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 조치를 강화시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음.

Ⅲ. 협상 타결 후의 주요 상황 전개

□ 2014년 1월 2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제재조치 완화 실행

- 핵협상에서 합의된 공동행동 계획이 금년 1월 20일(현지시각) 발효되면서 이란 정부가 순도 20%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기 생산된 20% 고농축 우라늄을 중화하고 있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확인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6개월간의 제재완화 시행을 발표하게 됨.
- 제재완화 조치 적용시한은 오는 7월 20일까지며, 6개월간 이란의 공동행동 계획 이행 상황과 이란-주요 6개국 '포괄적 합의' 여부에 따라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음.



- 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부터 미국 정부의 제재에 의해 금지되어 온 대 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 및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7월 20일 까지 6개월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이란산 원유 수입도 추가 감축 없이 현행 연간 2,400만 배럴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에서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2009년 9.6%에서 2013년 5.2%로 현저히 낮아졌음.
- 같은 날 EU도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운송보험 제공 금지조치, 이란과의 귀금속과 석유화학제품 교역 중단조치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잠정 해제하였음. 또한 EU는 1단계 조치의 시행 기간 중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EU의 운송보험 제공 재개로 이란산 원유의 수출은 제재조치 완화 기간 동안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동시에 국제유가 하락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제재조치 완화 시행에 따라 이란은 그동안 동결되었던 42억 달러의 해외 자산 중 첫 번째 동결해제분인 5.5억 달러를 2월 1일 수령하였으며, 향후 7회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분할 수령하게 됨.
- 한편,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관련 품목 등 그간 수출이 막혔던 19억 달러 규모의 상품 수출 및 귀금속의 국제거래도 가능해져 이란은 향후 6개월간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됨.

□ 이란과 IAEA가 7개 실무절차에 합의했으나, 핵실험 의혹의 대상인 Parchin 기지 사찰에는 미합의

- 이란과 IAEA는 2월 8일부터 테헤란에서 후속협의를 벌여 2월 9일에 7개 실무절차를 5월 15일까지 이행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IAEA가 핵실험 의혹을 제기한 Parchin 군사기지 사찰은 동 실무절차에 포함되지 않았음.
- 테헤란에서 동남쪽으로 30km 떨어진 Parchin 기지에는 핵 고폭 실험을 위한 격납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IAEA는 이를 핵무기 개발의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는 반면 이란은 재래식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함. 양측은 2011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사찰 관련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5월 15일까지 이행될 7개 실무절차

- 1) 이란은 IAEA 사찰단에게 Yazd의 Saghand 우라늄 광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 2) 이란은 IAEA 사찰단에게 Ardakan의 농축 우라늄 생산공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 3) 이란은 Arak의 연구용 IR-40 중수원자로에 대한 IAEA 설계정보질의서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를 업데이트하여 제출함.
- 4) 이란은 IR-40 중수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 접근(safeguards approach)과 관련하여 IAEA와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함.
- 5) 이란은 Lashkar Abad Laser Center*에 대한 IAEA 기술사찰단의 방문을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레이저에 의한 동위원소 분리를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 생산기술 연구소
- 6) 이란은 핵연료 용도로 사용되거나 동위원소적으로 농축되기에 적절한 수준의 순도와 구성에 미달하는 핵연료 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7) 이란은 기폭장치의 개발에 관한 정보 및 설명을 IAEA에 제공함.

□ IAEA가 이란의 합의내용 이행 확인

- IAEA는 2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협상 합의 내용에 따라 순도 20%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지난해 11월 합의 타결 당시 196kg였던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현재 160.6kg으로 약 18% 감축하였다고 밝혔음.
- 단, 순도 5%의 우라늄 생산은 계속 진행되어 재고가 지난해 11월의 7,154kg에서 7,609kg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분임. 고농축 우라늄의 나머지 감축분은 우라늄 산화물로 전환 중임.
- IAEA는 또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우라늄 산화물로 전환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Natanz와 Fordo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음. 아울러 Arak 중수로의 경우 건설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으며, 주요 부품의 신규 설치나 원자로용 연료 제조 또는 시험도 없었다고 확인하였음.



- 앞서 이란은 P5+1과 2월 18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협상 후속 협의를 개시, 최종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과 이행 계획안에 합의하였음. 다음 회담은 오는 3월 17일에 열릴 예정임.

□ 이란과 영국간의 공식 외교관계 복원

- 영국 외무부는 2월 20일(현지시각)부터 이란과 직접적인 외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란 정부는 영국 런던의 자국 대사관에서 비자와 교역 관련 영사업무를 재개하였음.
- 영국과 이란은 2011년 11월 이란 강경파 군중이 핵개발에 대한 서방 제재에 항의해 주테헤란 영국 대사관을 점거하면서 단교하였으며, 이후 테헤란에서는 스웨덴 대사관이 영국 정부를 대신해 영국인을 위한 영사 업무를, 런던에서는 오만 대사관이 이란 정부를 대신해 이란인을 위한 영사 업무를 맡아 왔음.
- 양국간 외교관계 복원은 작년 11월의 핵협상 타결 이후 이란의 대 서방 관계개선에 가속도가 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 한시적 제재 완화가 제재의 완전한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등의 미합의로 인해 불투명

- 6개월 시한부 조건으로 실행되고 있는 경제제재 완화는 오는 7월 20일까지 계속되며, 이란이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다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의 한시적 완화가 완전한 해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인 ①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②기존 원심분리기의 해체, ③Parchin 군사기지에 대한 IAEA의 사찰 등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전제됨.
- 이밖에 이란이 최근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차세대 원심분리기 개발의 성공 발표 등으로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향후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란의 국제수지 개선과 플러스 경제성장 기대

- 경제제재 완화 실행으로 이란의 수출 관련 보험 및 운송에 대한 EU의 제재조치가 잠정 해제됨에 따라 원유의 생산 및 수출 증가가 기대되어, 이란 경제는 2014년에 최소 1.5%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 표 1 > 이란의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f
경제성장률	5.9	2.7	-5.6	-3.0	1.5
재정수지 / GDP	-1.2	-0.9	-0.7	-2.4	-1.7
소비자물가상승률	10.2	20.6	19.9	39.3	26.0

자료: IMF, EIU.

- EU 제재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로 2012년에는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53.8%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7%에 그쳤으며, 2013년에는 경제제재 지속으로 원유수출 감소가 계속되며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됨에 따라 경상수지도 GDP 대비 1.1%의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한시적 경제제재 완화로 원유수출 증가가 기대되나,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해 상품수지가 소폭 흑자 전환에 그쳐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0.9%로 약간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표 2 > 이란의 주요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f
상품수지	37,330	67,069	30,975	-471	56
서비스수지	-10,040	-8,432	-6,293	-5,539	-5,337
경상수지	27,554	59,383	26,271	-4,736	-3,549

자료: IMF, EIU.

□ 이란의 원유 수출 증가가 국제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이란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2013년 9월 258만 배럴로 25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4년 1월 278만 배럴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는 2011년(평균 436만 배럴)과 2012년(평균 368만 배럴)에 비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임.



< 표 3 >

이란의 최근 일일 원유생산량 추이

(단위: 만 배럴)

월 간	2013.9	2013.10	2013.11	2013.12	2014.1
생산량	258	268	271	275	278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il Market Report 13, February 2014.

- 한편, 이란산 원유의 일일 수출량은 핵협상 타결로 중국과 인도에 대한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0월 76만 배럴에서 2014년 1월 132만 배럴로 현저한 증가를 이루었음.
-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인도에 대한 수출은 증가(총 23.5만 배럴)한 반면 한국, 시리아, 대만에 대한 수출은 감소(총 13.1만 배럴)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 2월 이후부터 원유의 생산 및 수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lobal Research는 최근 이란의 원유수출 증가 여파로 인해 북해산 브렌트유의 가격이 금년 중반에는 배럴당 9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현재 리비아와 남수단이 내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유가의 급속한 하락을 막고 있으나,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유입 증가에 따라 국제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됨.

□ 이란 시장에 대한 각국의 재진출 추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 준비 필요

- 현재 이란 정부는 원유 증산을 위해 상류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 증가가 전망됨.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6년 이란의 건설시장 규모는 2013년(약 887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1,5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표 4 >

이란의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약금액	659	887	1,065	1,283	1,544

* 2012~13년은 추정치, 2014~16년은 전망치.

자료: 해외건설협회.



- 이란이 야심적으로 추진한 South Pars 천연가스전 시설 공사의 대부분을 우리 건설사들이 수주한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들은 세계 4위 규모의 해외건설 발주국인 이란 시장에 재진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대 이란 제재가 강화되기 전인 2009년 우리 건설사의 이란 수주액은 약 24.9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중 5위 규모였으나, 제재 이후 신규 수주실적이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중국, 인도 건설사들이 이란에 대거 진출하였음.

작성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5720)
oki1122@koreaexim.go.kr